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솔라시도 개발 탄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결실

영암·해남 기업도시 세제특례

투자 촉진·주택분양 등 숨통

전남도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조성중인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

택 세제 특례를 주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해남·영암·태안 3곳에 조성중인 기업도시에 한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전남도가 보성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영암·해남 일원에 추진중인 솔라시도 기업도

시 주택분양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솔라시도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함에 도 불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화 예정지역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 지역에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남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 후속 법령도 개정되는 결실을 봤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

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했으며,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대전환의 세계적 변화 흐름 속에 바람과 햇빛 등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우수한 산업입지 여건이 결합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RE100 산업 최적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정근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서울 SK본사에서 조경목 SK수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장(SK에너지대표)과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SK그룹, 사회적경제 활성화 맞손

광역단체 최초 지원협약 체결

기업성장 등 선순환체계 조성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SK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는 22일 서울 SK본사에서 그룹 경영 최고 협의기구인 SK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회와 전남지역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경목(SK에너지 대표)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구영모 행복나래(주) 대표, 나석권 (재)사회

적가치연구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SK그룹은 올해부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토록하고,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SK그룹의 사회적기업인 행복나래(주)와 SK스토아, 11번가 등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TV홈쇼핑 방송 판매, 사회적기업 전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증대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한다.

협약식에선 전남지역 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SK수펙스추구협의회 임직원의 ‘전남 사

랑애(愛) 서포터즈’ 현장 가입과 홍보 이벤트를 함께 진행했다.

조경목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지역 사회적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SK와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가치도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SK그룹이 전남에 추진하는 태양광산업,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전남도와 SK그룹의 발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SV위원회를 비롯해 7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SV위원회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연계한 사회적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을”

시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광주·전남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나운 의원은 “광주·전남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 등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며 “인공지능(AI)·자동차

·전력·부지확장·균형성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강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뉘 특화단지 지정 및 각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와는 별개로 반도체 특화단지와 관련해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1차 검토·조정,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박홍근



우원식



주호영



성일종

박홍근·우원식·주호영·성일종 의원

지역발전 공로 ‘광주 명예시민증’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국회에서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준 여야 국회의원을 명예시민으로 선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명예광주시민으로 선정된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예산안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기획융역비와 AI 영재고 광주 설립 용역비 등 광주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준 공로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과 주요 기관장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2명의 명예시민을 위촉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상담,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062. 607. 2672